

5 분 자 유 발 언

-고성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현수막 정책 제안 -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 대가면 지역구 의원 이쌍자입니다.

새봄이 시작되는 따뜻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은 새싹이 꽃이 되어 생명이 움트는 봄날처럼,
우리 고성군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현수막과 관련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수막은 행사나 홍보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수막은 일회성으로 사용 후 버려지거나 소각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수막 사용을 무작정 금지시킬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수막 사용을 하면서도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을 현수막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의 도입입니다.
인근 통영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우산, 파라솔, 모래주머니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에서는 피서객들에게 폐현수막으로 만든 돛자리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에코백, 앞치마, 마대봉투 등 다양한 용도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현수막을 재활용 하는 방식은
환경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과거에 폐현수막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소원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확대입니다.
현수막의 주요 소재인 폴리에스터는 썩지 않는
화학물질로써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같은
발암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재는 사용 후
자연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전, 울산, 부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친환경 현수막 도입을 준비하거나 검토중인 만큼
우리 고성군도 이러한 친환경 소재를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정책의 도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뿐 아니라,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를 도입해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중심상권의 현수막 게시대는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지정하여, 사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고성군도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 촉진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성군민 모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현수막이 친환경적으로
제작되고, 재활용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고성군이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적인 모델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